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2025 vol.66

창



송정동 마을ON '골목상권 소비전작' 시민참여 이벤트 2탄

#골목 삼세판 챌린지

상점 3곳 · 천원 3번 · 영수증 3장

상점 3곳 방문하기

송정동 골목상권
상점 3곳 방문하기

천원 이상 구매

각 상점 당
천원 이상 구매하기

영수증 인증하기

영수증 세장을
모아 제출하기

이벤트 기간

4월 23일 ~ 5월 14일

참여 대상

송정동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이벤트
주요내용

① 골목 삼세판 챌린지 미션 수행하기(3·3·3 미션)

② 골목 삼세판 챌린지 미션 인증하기

*인증방법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네이버폼
(<https://naver.me/G8syJ0ZA>)으로 제출

③ 골목 삼세판 챌린지 미션 반복하여 수행하기

참여인센티브

①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송정동 쿠폰형 마을화폐 '마을ON' 화폐(1만원 상당) 지급

② 송정동 상점 최다 방문자에게는 '송정동 골목대장'으로 선정하여
송정동 쿠폰형 마을화폐 '마을ON' 화폐(5만원 상당) 지급
(당첨자 발표 : 2025년 5월 19일 / 개별 문자 안내)

참여 인센티브는 송정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송정다누리 3층)으로 방문 수령
마을ON 화폐는 송정동 마을화폐 가맹점 '마을온 우리가게'에서 사용 가능

네이버폼



송정동 마을ON 골목경제 주민협의체
문의 ☎ 943-8881



2030교실

선생님과 학생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수업
전남교육이 함께합니다



4.12. ~ 10.25.
매주 토요일 10시~18시



마랑항 증방파제 내

MARYANG PORT
SATURDAY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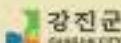
2025

토요일에 만나는 신선한 즐거움!

마랑놀토 수산시장



주최



주관

마랑놀토수산시장 상인회



표지 그림

하성흙. 2025. 주먹밥(기증작)

하성흙 작가의 「주먹밥」은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았던 광주 공동체의 기억을 담아낸 작품이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주먹밥은 누군가를 위해 손에 쥐어 건넨 마음이자, 위기의 순간마다 피어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년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지켜온 '문화로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지역의 역사와 삶, 시민의 목소리를 문화로 풀어내며 더 넓은 연대를 일궈온 재단의 발걸음처럼, 「주먹밥」은 문화가 사람을 이어주고, 고통 속에서도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전한다.

Roc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발행인 노경수
편집인 김윤아
편집장 송재환
편집위원 박선영 이현식
기획 및 디자인 사무처
전자우편 r-cultural@hanmail.net
문의 062-234-2727
팩스 062-234-2728
창간 2005.11.1
발행처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 3가) 삼호빌관 2층

contents

- 04 축하 시(詩)
금남로에 심은 한 그루 나무 백수인
- 05 특집기획_재단 창립 20주년 특집
시민의 힘으로 20년! 지역의 미래를 열다
 - 1. 시작의 질문, 지역의 길이 되다 김상윤
 - 2. 기록하다 나누다 기억과 미래를 잇다 김덕진
 - 3. 버티다 세우다 지역의 빛이 되다 이기훈
 - 4.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의 길 노경수
- 22 문화전단_서울 예술단 광주 이전에 대해
예술생태계, 진짜 동행을 위해 고난영
지역으로 향하는 예술인프라, 지금 필요한 것은 오윤환
- 28 맛. 잇는. 공간
심이 있는 공간_이장우 가옥 송재환
우리가 아는 맛_양동시장통닭 편집부
시간을 잇다_5·18 겪은사람, 들은사람 이춘희, 김동규
광주 역사 공간_광주비행장 이건상
- 40 활동소식 회원소식
- 44 함께하는 사람들

금남로에 심은 한 그루 나무

백수인 시인, 재단 5대 이사장

무등산이 내려와 금남로에 심어놓은
한 그루 나무
어느새 스무 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이 내려주신
햇빛을 먹고, 빗물을 마시고
시민들이 어루만져주신 손길과
따뜻하게 껴안아 주신 큰 사랑으로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늘 향해 굳세게 가지를 뻗고
초록빛 짙은 잎사귀들 풍성합니다
가지 사이로 고전(古典)과 역사가 구름으로 흐르고
잎사귀마다 예술이 초록으로 빛납니다

이제 광주의 땅속 깊이 정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마다 코운 빛 꽃송이를 피워낼 것입니다
그 향기가 무등산 골짜기에 가득할 것입니다

멀리 역사의 언덕에 서서 보아도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큰 나무로 커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그늘에 마주 앉아
문화의 숨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광주천에 흐르는 자유와 정의, 평화의 물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20주년 특집기획

시민의 힘으로 20년, 지역의 미래를 열다

1. 시작의 질문, 지역의 길이 되다
2. 기록하다, 나누다, 기억과 미래를 잇다
3. 버티다, 세우다, 지역의 빛이 되다
4.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의 길

지역문화

지난 20년, 누군가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누군가는 사람들과 나누고,누군가는 문화공동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로 살아온 당신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가족 여러분이 만들어 온 20년의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1

시작의 질문, 지역의 길이 되다

광주문화수도 조성과 호남학진흥원 설립'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시민조직,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를 지향하는 단체, 광주 최초의 그런 시민단체가 되고자 했다.

김상윤 재단 전 상임이사

제일회제 고분실에 있는 내 사부실로 양재영 소채원장과 이동호 선생이 찾아왔다. 이동호 선생은 '무등산권문화유산보존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단체의 회원이었다. 보존회는 서명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단체였다. 그들은 '호남학진흥원'을 만들기 위해 내가 그 중심에 서주기를 바랐다. '호남학진흥원' 설립을 위해 이미

170명의 후원자가 10만 원씩 출연하여 1,7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나는 그 뜻에는 공감했지만, 당시 내가 집중하고 있던 국제사업 '광주문화수도' 조성이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광주문화수도는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었고, 2천억 원 규모의 '광주문화재단'을 만들어 정부와 광주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 아직 광주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 것인지는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 학진흥원' 설립에 직접 나서 수 없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했다. 그러나 후배들이 다시 찾아왔고, 이미 정규철 선배와 서명원 선생님께서 찾아왔다. 나는 "이 일은 윤장현 같은 시민운동가가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윤장현도 이 일은 김상윤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진했다. "경주문화수도 조성"과 호남학진흥원 설립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결국 두 가지 목표를 아예 단체 정관에 명시하고 단체 설립에 착수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70동지회'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70동지회'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동지들의 모임으로, 윤장현과 내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단체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경주 전체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우리 일에 찬성하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재계, 언론계, 방송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참여해야 했다.

기존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감시'를 활동의 주목표로 삼았지만, 우리가 만들려 했던 단체는 그와 달랐다. '경주문화수도 조성'과 호남학진흥원 설립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시민조직이었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를 지향하는 단체, 경주 최초의 그런 시민단체가 되고자 했다.

단체들이 잡혀가면서 이름을 논의했고, 목포대 니승만 교수가 '지역학'의 개념을 강조하며 '지역문화교류재단'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그러나 호남이라는 명칭이 빠진 데 대한 원로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결국 정규철 사무총장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라는 이름으로 문화부에 등록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대 백낙청 교수를 모시려 했지만, 이미 경주 문화계가 분열된 상황이라 쉽지 않았다. 결국 호남학의 권위자인 전남대 안전오 교수를 이사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무렵 경주문화수도 조성 기구가 만들어졌고, 송기숙 전남대 교수가 국무총리급 조성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장관급 조성위원들과 차관급 실무위원들이 구성되었고, 조성위원회에는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문화계 전문가들이 내기 포진했다. 나는 문화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김하림 교수, 김영기 교수와 함께 실무위원 발탁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화부 장관은 영화감독 출신 이창동이었고, 추진단장은 시인 이영진이었다. 추진단장은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문화수도 기획과 집행, 실무위원회 간사 역할까지 맡는 중책이었다.

단체 등록을 위해선 20억 원의 기금이 필요했다. 나는 이상식 교수, 김동원 교수, 서명원 선생과 함께 기업을 돌며 모금에 나섰다. 금호산업, 부국철강, 보성



기업, 삼능건설, 금강건설 등이 참여했고, 황영성 회
백은 60호 내락을 기부해주셨고 그 그림을 1,800만
원에 팔아 기금에 보냈다. 우리가 모은 기금은 3억
원을 넘지 못했지만, '호남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재
단'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졌고, 우리는 이상식
교수를 모시고 문화부에 등록을 시도해 성공했다.

박광대 경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강정제 전남대
총장, 김주호 조선대 총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호남학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김
효석 의원과 지병문 의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
지만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전북 세 광역지자체의 공동 참여가 필요했고, 김완주
전북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전북이 광주-전남에 들
러리만 싶고 얻은 게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전북을
설득하지 못했고, 사업은 공동 추진의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도 박광대 시장은 '호남학진흥원' 설립 종합계획
을 위한 2억 원의 용역비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
배정했다. 이상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한섭 전 광
주시 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이동호를 감사로 하여

'호남학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가 진흥원 설
립을 전담하게 되었고, 나는 경주문화수도에 전담합
수 있었다. 송기숙 조성위원장을 만나 "경주문화수
도는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장은 '문화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송기숙 위원장도 "이제야 가닥
이 잡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표류 중이었다. 명칭도 '경주
문화수도'에서 '아시아문화메카', 다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바뀌었고, 정부는 2조 원의 투자를 약속
했으나 실질적인 기획은 부족했다. 추진 주체는 문화
인, 영화인, 미술가 등 문화계 인사들 위주였고, 문화
산업계나 경제계의 시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경주문화도시협의회'를 제안하고, 26개 단체
를 모아 이를 출범시켰다. 경주전남문화연대, (사)대
동문화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축이 되었
고, 문화단체 외에도 오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김영기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고, 김지원이
실무체임을 담당했다. 동시에 과학계에서도 움직임



재단은 '광주문화수도'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호남학진흥원' 설립이라는 지역의 학문적 과제를 결합해, 실천적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출범했다. 그리고 비판과 감시에 머물던 기존 시민단체의 틀을 넘어, 지역문화의 창조적 기반 조성 and 학술 자원의 체계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있었다. 광주과기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의 우윤택 교수는 M&E Lab 설립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한국CT연구원) 구상으로 발전했다. 당시 광주과기원 감사로서 김하림 교수, 민형배 선생과 함께 이 일에 전폭적으로 결합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실천의 기반이자 정신적 후방이었다. 광주의 문화미래와 호남학의 중심축을 함께 끼안고자 했던 이 시도는, 지금도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재단은 '광주문화수도'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호남

학진흥원' 설립이라는 지역의 학문적 과제를 결합해, 실천적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출범했다. 그리고 비판과 감시에 머물던 기존 시민단체의 틀을 넘어, 지역문화의 창조적 기반 조성 and 학술 자원의 체계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재단의 출범은 지역과 국가를 잇는 문화적 상상력의 출발점이었으며, 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주체적 실천을 지속해왔다.

이후 20년의 활동은 그 출발의 가치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다. 🌸

창립 20



#02 기록하다, 나누다, 기억과 미래를 잇다

김덕진 재단 6대 이사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출범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 20년간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 창립 초기, 아시아문화도시 구축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던 재단은

2012년을 기점으로 방향을 수정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미를 남기는 연구와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중심에는 '호남학'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를 둘러싼 심포지엄, 시민강좌, 콘텐츠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1. 호남학 심포지엄: 기록에서 활용으로

재단의 대표 사업 중 하나는 해마다 개최해온 학술 심포지엄이다. 재단의 학술 심포지엄은 호남학 분야에서 심화가 요구되는 분야나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다루었다. 초기에는 「유배와 호남문화」(2008), 「기축옥사 재조명」(2009) 등 전통사회 속 호남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했다면, 이후에는 재단이 수행한 연구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주제들로 발전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고봉 기대승 종가문적 한글회」 등의 성과를 토대로, 호남 기록물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 시기 발표된 주제들은 '정묘·병자호란과 호남의 병'(2010), '호남기록문화유산 조사와 정리, 그리고 전망'(2011), '호남의 정의정신과 그 기억'(2011), '호남기록문화유산 조사와 정리, 그 의미와 콘텐츠 방안'(2011), '조선시대 호남교육의 실상과 위상'(2012),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2012), '호남기록문화유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2014)가 있었다. 이 주제들은 모두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고봉 기대승 종가문적 한글회」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한 해에 진행한 심포지엄 주제를 비교해보면 해당 사업에서 발전된 연구성과에 관한 내용과 그 연구성과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뉘어 개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이미 경주읍성 구축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진행한 심포지엄에도 이어진다. 해당 시기에는 '남도의 음식과 문명'(2013), '경주읍성 역사 문화 자원화 및 활용 방안'(2014), '호남지역 여행문화의 흔적을 찾아



16회 학술심포지엄(2023.11)

서'(2014), '임제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경주역사 연구'(2015)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의 주제를 통해 살펴보면 재단의 연구 범주가 조선시대에서 근대, 임제강점기까지 확장되고, 방향성 또한 역사 연구에서 기록물의 활용과 재해석에 중점을 두게 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재단의 방향을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범위의 역사를 다루고, 그 역사가 문화자원이 되는 데 힘쓰는 방향으로 활동이 확대된 결과이다.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던 심포지엄은 2022년부터 재개되어, 「여행기로 만나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경주 문화역사자원」 등을 주제로 재단이 발간한 단행본들과 연계한 기획이 이뤄졌다.

재단의 심포지엄은 연구성과를 돌아보는 학문적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각 심포지엄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조하며, 역사적 자원들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다. 달리 말하면 지역의 역사 자원을 어떻게 살아있는 문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지역별 검색시스템 >

지역별 검색 시스템은 지역별 문화유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호남인물 검색시스템 >

특정 호남인물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

지역문화유산

사건문화유산

호남문화유산 소개

• 호남에서 기록 보관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2013-2015)

• 호남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2016-2019)

• 호남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2013-2015)

호남기록문화유산

호남기록문화유산 정보

한국 문화유산

한국 문화유산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 모습.

2. 시민대학: 생활 속의 역사문화 교육

재단은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고품질 시민강좌'를 시행하는 역사문화시민대학을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기후변화와 역사」, 「역사 속의 질병과 인간 생활」, 「전라도 여행문화의 흔적」, 「역사와 문화로 읽는 사랑이야기」, 「불(火)로 보는 한국인의 정서」, 「한민족의 전통사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호남학을 일상의 역사 문화교육으로 풀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강좌들은 호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조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 디지털과 출판으로 확산한 지역 문화 콘텐츠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 재단은 역사·문화 콘텐츠의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지역 문화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로 발전이 가능하다.

지넛과 빛 출판에도 힘썼다. 「사이버 경주음성 구축 사업」(2013~2015)은 경주 음성을 중심으로 고분헌, 문집,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 사업으로, 문헌 해제와 디지털 아카이빙을 선도한 시도였다. 이어진 「경주역사문화지원 스토리텔링 사업」(2016~2019)은 경주의 정체성을 문화교육 콘텐츠로 연결하고자 한 실험이었다.



웹툰북 제작, 전국 공모전, 시민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역사 문화를 재해석하고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의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다. 「광주여행기」(2021), 「호남여행기」(2022), 「광주읍성이야기」(2023), 「해방 이후 광주 학교 이야기」(2024) 등은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읽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해당 시리즈의 후속작이 출간될 예정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 20년간 호남의 역사 문화자원을 수집·연구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재단의 활동은 단순한 연구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시민 교육, 디지털 콘텐츠, 출판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재단은 광주 정신을 대변하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광

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한글과 근현대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주제 발굴이 중요하다.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근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광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지역 문화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자체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재단이 이끄는 미래의 문화사업들은 광주와 호남 지역의 역사적 자원들을 더욱 풍부하게 발굴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창립 20

#03

버티다, 세우다, 지역의 빛이 되다

이기훈 재단 전 상임이사,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의 무궁무진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문화 도시 광주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주간지 <청> 원고를 요청받고 잠시 상념에 잠겼다. 재단 창립 20주년 특집기획 주제에 대한 부담보다는 10년 훌쩍 넘게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한 소회도 회원과 시민들에게 담백하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재단 창립 이후 20년간의 여정을 만추해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재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굴·연구·콘텐츠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의 무궁무진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문화도시 광주를 발전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아문도시조성사업)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거나 경주시 문화행정의 궤도 이탈이 감지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감사·비판·정책 제언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아울러 경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대의 요구도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였다. 시민의 문화적 삶과 함께해온 재단의 20년 활동을 짧은 시간에 담아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재단은 모든 문화의 모태이자 무한한 문화자원을 함유하는 지역문화에 주목하여 2012년에 부설기관으로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이후 대학의 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수집·연구하고, 융·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

다. 이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및 '경주역사문화지원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호남지역 국학진흥 및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공동체 실현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두 사업의 축적된 연구자산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고, 매년 단행본과 자료집도 발간도 병행하였는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연구자와 문화해설사들의 필수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창출과 지역문화담론 형성에 도 기여하였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문도시조성사업은, 국책 사업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주요 공간은 경주이며 시민 주체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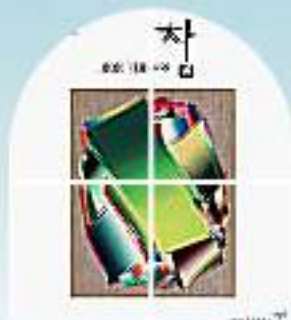


라는 명확한 지향점과 기미년스가 조성사업의 추진 체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2011년 이후부터 재단은 아문도시조성사업의 중요한 고비마다 가치와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듬면서도, 기자회견·간담회·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실상 지역의 시민 문화계를 대표하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였다. 재단의 이러한 행보는 지역사회에서 위상 제고와 동시에 때로는 온전히 미처받지 못한 상황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문도시조성사업의 일몰을 대비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에 따른 문화전당의 완전체를 앞둔 시점에서 재단의 역할은 이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단 재단은 아문도시조성사업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지역의 현안 및 내림과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자 전문가·시민문화계·시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출하는 것에 주지하지 않았다. 특히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한 경주시 문화행정 및 정책 진단 공론장은 시민문화계가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서 경주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역사회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담론지 <창>(등록 65호)도 빼놓을 수 없는 재단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2005년 창간되어 매년 개간지로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창>은 지역의 빛이 되는 전문 문화 담론지로 위상이 제고되고 있으며,



매회 1,000부 이상을 발행하여 공공기관 및 문화 관
개기관과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지역의 문화적 소동
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계를 넘어 지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
진하였던 경주-대구 시민문화단체 교류 사업, 경주
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의 기반 구
축을 위한 다양한 시민문화 강좌도 매년 꾸준히 개
행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다양한 주제
를 통해 문화도시 경주의 시민 확대에 기여하고자 운
영하는 '역사문화시민대학', 면면히 흐르고 있는 우
리 지역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정의
-평화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경주정신시
민대학'은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모
범적인 강좌로 정착되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숨결을
찾아서 전통 건축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진행하였던 정기적인 '내마 문화답방(매년 2회,
총 40회)은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시선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21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매년 열리고 있
는 '세계 지성이 경주를 말하다' 행사는 전문작가와
시민작가가 함께하는 '드로잉 퍼포먼스'와 전시·공연
·강연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축제를 선보여,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경주정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경장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와 시민이 행
복한 문화도시 경주를 실현하는 과정에 지난 20년간
의 제단의 발자취는 묵직했고, 도시 곳곳에 스며들었
다. 이제는 창립 당시에 그렸던 경주공동체의 모습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데 제단의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5년 4월 15일, 눈이 시리도록 맑은
햇살 아래 100여 명의 뜻있는 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과 민족, 그리고 세계 문화의 발전·매개·수신의
핵심 거점이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문
화적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주장했던 제
단 창립선언문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크다.

문화적 트렌드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
대에 20년 전 제단 설립의 당위성이 유효한지와 환
등의 공·과에 대한 성찰과 진단이 전제되어야 하지
만, 분명한 것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및 문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단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창림20

#04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의 길

문화공동체 그 소용돌이 속에 버티는 문화의 길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

노경수 재단 이사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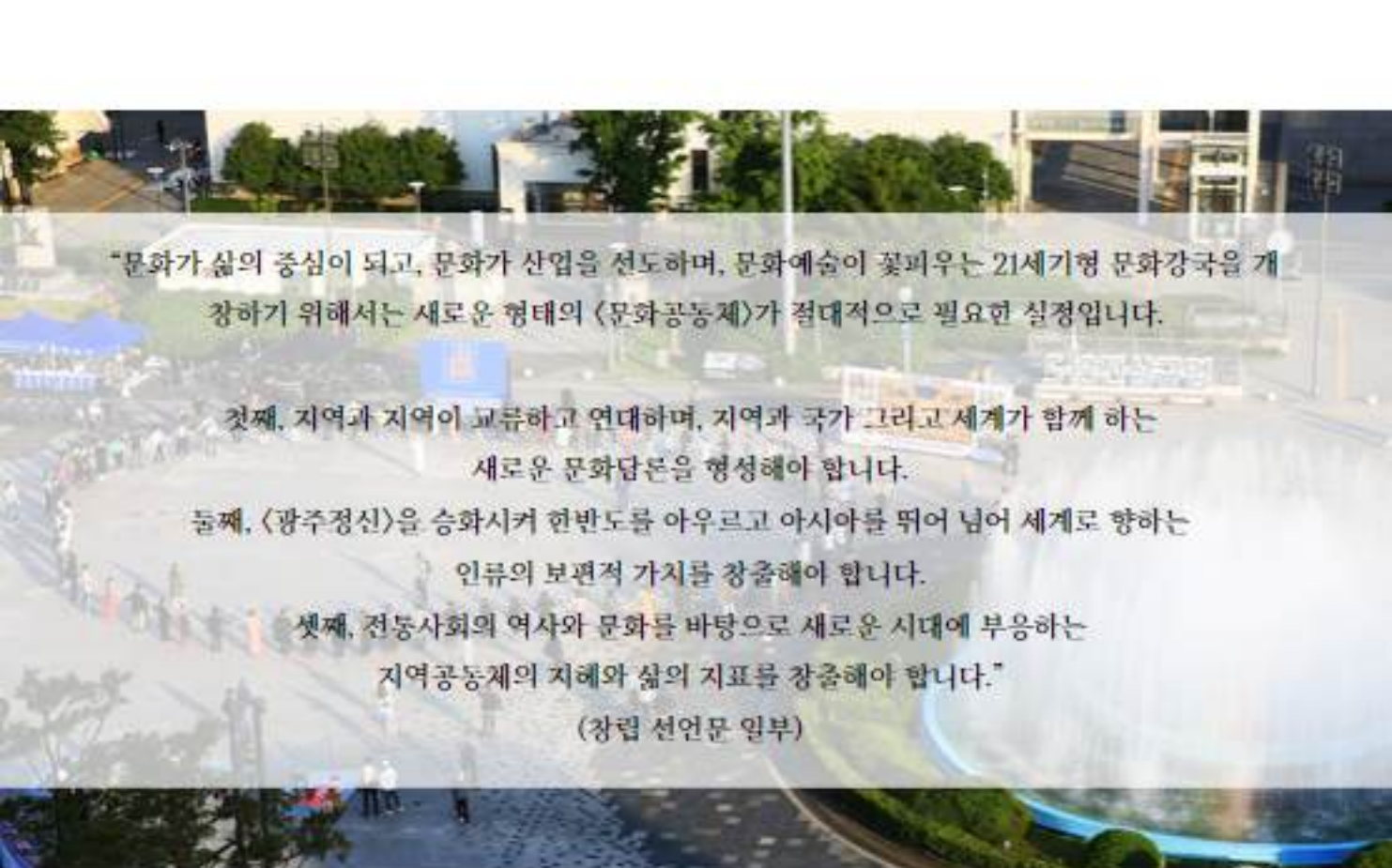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지역에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민이 만든 문화만이, 시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문화가 삶의 중심이 되고, 문화가 산업을 선도하며,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21세기형 문화강국을 개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고 연대하며,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함께 하는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정신>을 승화시켜 한반도를 아우르고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로 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공동체의 지혜와 삶의 지표를 창출해야 합니다.”

(장립 선언문 일부)

2025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창립 2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든든한 디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순수한 모임으로 시작한 우리 재단이 이즈음 청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온 걸음들은 단순한 기관의 역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온 살아있는 실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는 수많은 시민의 꿈과 상상력,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5년, 재단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으며,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구조 또한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었습니다.

**“지역의 문화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이론이나 모범 사례가 아닌, 지역의 골목을 걷고 주민과 대화하며 문화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은 실천의 누적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창립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배님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500명이 넘는 회원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문화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문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습니다.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2009),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2010~2017), 고봉 기념승전생 종가문적 한글화 사업(2013~2015) 등에서의 시청각 기록물, 구술사 채록, 마을 아카이브, 생활사 조사는 지역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2013~2016)과 같은 시민 문화교류사업 역시 재단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입니다. 도시와 농촌, 청년과 노인,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한 교류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을 잇는 사회적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문화담론사업은 문화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어진 문화담론지 <청> 발행, 아시아문화예술 디지털공동체 구축을 위한

그리고 재단의 산과 역할을 해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만행님처럼 자리를 지켜주신 김상윤, 김성 고문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철학과 실천은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재단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수도권 중심 구조는 더



DB 구축사업(2006~2007),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회 이어온 학술심포지엄, 지역 대학 연계 학술대회, 영호남 협동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는 곧 사회 변화의 촉매임을 증명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재단의 철학과 방향을 함께 세우고 지켜오신 역대 이사장님들의 깊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1대 안진오 이사장님, 제2대 오병문 이사장님, 제3대 허정관 이사장님, 제4대 문병관 이사장님, 제5대 백수연 이사장님, 제6대 김덕진 이사장님께서 각자의 시대적 과제를 품고, 재단을 지역문화운동의 중심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속 공고해지며,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은 문화의 형식과 내용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지역에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민이 만든 문화만이, 시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재단 또한 그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고, 연구와 실천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적 문화주체로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구조, 지역 안에서의 신뢰 기반, 연구 기능과 실천 기능의 균형, 청년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방식 모두가

▶아시아 문화 교류 기반 마련

이제 문화는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중심축입니다.

20년 전, 우리는 작은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 역사와 문화를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시던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김해 봅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구체화하며, 문화수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주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문화수도 만들기과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문화 플랫폼 구축 ▶청년·다문화 공동체와의 연대 강화 ▶지역문화 아카이브 체계화 및 개방 ▶시민참여 기반 문화정책 실현

성년이 된 젊은 재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힘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 출발입니다.

다가올 20년,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재단은 시민사회의 든든한 배춧묵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숨결을 잇는 지역 역사 및 문화의 여정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 교류호남재단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 예술과의 진짜 동행을 위해

고난영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지회장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문화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변화다. '문화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일이다. 예술이 삶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은 단지 즐길거리를 넘어 감수성과 정체성,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는 힘이 된다.

그러나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오래도록 활동해온 예술인들에게 이번 이전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안길 수 있다. 그들은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예술을 지켜왔다. 그런 이들의 눈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울예술단의 공연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격차는 부정할 수 없다. 만약 지역 예술인들이 그 공연을 단지 '관객'으로만 접해야 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예술단 내부에서도 이전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절차, 장기적 창작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전이 단체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미칠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반발이 아니라, 조직과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예술단과 지역 예술계는 단절이나 경쟁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적 협약을 넘어서, 창작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예술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인이 이 변화 속에서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창작과 기획, 고민의 전 과정을 함께하지 않은 채 단지 무대에 초대받는 구조는 협업이라기보다 소비에 가깝다. 서울예술단이 축적해온 경험과 시스템이 지역 예술 생태계와 나뉘질 수 있어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고, 연출·안무·음악·무대미술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옮긴다고 저절로만 들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만드는 무대'

이전이 아닌 '동행'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가치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원 순환의 구조 또한 중요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예술단이 보유한 무대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은 지역 예술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은 닫히고, 지역 예술은 다시 고립된다. 장비 대여, 공간 공유, 인력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술 생태계가 숨 쉬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실제로 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젊은 창작자를 위한 장기 레지던시나 공동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언어와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는 젊고 실험적인 창작자들이 많은 도시다. 이들과의 협업은 새로운 창작 방식과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서울예술단 역시 지역의 감수성과 에너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예술단이 이곳을 단지 ‘이전한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도시’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광주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만들어온 도시이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서의 결과 지역의 결이 살아 있는 곳이다. 서울예술단이 이 기억에 귀 기울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진심 어린 자세를 보인다면, 지역 예술계 역시 열린 마음으로 응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태도가 없다면, 이번 이전은 동행이 아닌 점유로 끝날지도 모른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한국 공연예술의 지형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 변화가 지역 예술인의 성장을 돕지 못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결국 수사에 그치고 만다. 진짜 무대는 함께 설 때 완성된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진정한 상생을 시작할 시간이다. 🌱



지역으로 향하는 예술인프라 지금 필요한 것은

오윤환 대한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지회장



서울예술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공립 예술단체로, 1986년 '88서울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었다. 현재까지 매년 3~4편의 작품을 통해 '가무극'이라는 독창적인 형식의 한국적 음악극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의 미학을 결합한 무대를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기반으로, 한국 무용과 무대미술이라는 전통예술에 대중성이 가미된 음악과 노래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예술의 지평을 확장해가고 있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은 과거 광주시립무용단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들이 한데 모여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무용수들이 같이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공연을 준비하였고, '사물놀이'부터 '심청전', '춘향전', '레퀴엠', '백조의 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소화해내는 멀티 무용단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필자 역시 발레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치며 한국적인 공연을 소화하고, 현대무용 작품을 거쳐,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왕자 역을 맡는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멀티 무용수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타 분야처럼 예술 장르도 세분화되었고, 광주시립무용단 또한 '광주시립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클래식 발레에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는 광주시립창극단(한국무용), 광주현대무용단(현대무용) 등이 각기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서울예술단은 이러한 분화 대신, 다양한 장르의 장점을 융합하여 고유의 공연양식을 창조해낸 점에서 특별하다. 물론 융합과 전문화 각각의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서울예술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독창적인 무대로 승화시킨 노력에는 이심전심 박수를 보낸다. 아쉽게도 직접 공연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높은 예술성과 창의적인 형식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예술단이 광주로 이전한다면...

[illegible]

서울예술단의 이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한국 2035' 전략 중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예술단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예술단은 명칭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는 광주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 출신 무용수들에게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광주시립창극단과도 상호 자극이 되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무용수들이 많지만, 이들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자리를 옮긴다면, 이들에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와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서울예술단도 지역 안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 문화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예술단과 ACC의 지향점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ACC는 전통적인 클래식보다는 창작성과 실험성을 중시하는 문화기관으로, 창작 공연에 강점을 지닌 서울예술단과의 궁합이 매우 이상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질 서울예술단의 무대를 생각하면 기대와 실感が 크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바로 현재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단 단원들과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다. 하루아침에 익숙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단원들에게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이해,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단지 “조금 고생하면 곧 나아질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을 예술인으로 살아온 필자로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이 깊이 공감된다.

실제로 예술 행정과 예술인 간의 간극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과거 필자도 예술 행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충돌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단지 행정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술가와 행정가 사이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 예전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임명되기도 했는데, 이 시기엔 예술가들과 생각이 너무 달라서 충돌이 있기도 했다. 요즘은 예술 전공자를 문화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는 예술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예술인과 행정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생하여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했으면 한다. 행정가와 무용수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예술단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현재 제2차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대상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합의가 우선되었으면 한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을 반대하는 시명운동에 5천 명 이상이 참여한 사실은 이러한 상호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예술과 행정, 중앙과 지역, 이해당사자 모두가 기분 좋게 동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전이 이뤄진다면, 광주 시민과 예술인들 모두의 진심 어린 환영 속에 새로운 문화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



양림동에서 만난 근대 한옥, 이장우 고택

송재환 바람아래 기획실장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의 결이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근대 건물들 사이에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고택이 하나 눈에 띈다. 이장우 고택이다.

겉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 한옥과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옥의 기본 골격을 지키면서도 근대기 주택의 흔적들이 곳곳에 녹아 있다. 시대의 과도기에서 태어난 독특한 공간. 이 고택은 그런 매력을 가득 품고 있다.

'고택의 시작은 정병호에서'



이장우 고택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시작은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 지역에서 큰 부를 자랑했던 정낙교의 아들 정병호가 안채를 짓고, 1935년에는 문간채를 세우며 집의 골격을 잡았다. 이후 1959년, 동신대학교와 동신중고등학교를 세운 교육자 이장우 박사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기존 건물에 더해 사랑채, 행랑채, 곳간채를 지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택의 모습을 완성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교육가의 철학과 당시 사회의 분위기까지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집을 짓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재료의 선택과 구조의 배치 등에서도 그런 흔적이 느껴진다.

이장우 고택은 단지 오래된 집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는 시점에서 전통과 근대의 건축 양식이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예를 들어 마당에는 일본식 영향을 받은 둥근 형태의 연

'근대기 건축과 한옥의 절묘한 조화'



못이 조성돼 있다. 이처럼 원형 연못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차주 등장한 조경 요소로, 근대기 양식과 어우러진 외래 문화의 흔적을 보여준다.

건물 내부를 보면 유리창이 달린 창호, 어단이문 구조의 거실 출입문, 일부 서양식 가구 배치 등이 눈에 띈다. 외부는 전통 한옥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내부 구성은 점차 서양의 생활방식과 실용성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장우 고택은 단순한 한옥이라기보단, 근대 주거문화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건축 유산이다.

'부유했던 과거의 흔적'

이 집이 한때 얼마나 부유한 가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안채 앞 계단 초석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정교하게 다듬어진 계단석이 사용되어 있다. 이런 석재는 궁궐이나 상류층 고택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집 주인의 경제적 여유와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담장 너머로는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주변으로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집 전체의 격과 조화를 이뤄내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다. 정원은 사계절 내내 색과 분위기를 달리하며 집을 감싸 안는다.

'역사문화마을 속 특별한 존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근현대 건축과 예술, 종교, 교육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는 공간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남긴 교회와 학교, 그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자취가 함께 남아 있다.

이장우 고택은 그런 마을의 분위기 속에서도 독특한 결을 지닌다. 주변의 붉은 벽돌 건물들과 달리, 전통과 근대의 중간쯤에 머문 이 집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레 끌어당긴다.

양림동에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거리투어도 운영되고 있다. 이장우 고택 역시 그 코스 중 하나다. 해설을 들으며 걷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어느새 살아 있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짧은 산책, 깊은 여운'

처음엔 단순히 한옥을 본다는 생각으로 들어섰지만, 나올 땐 마음에 묘한 여운이 남았다. 이장우 고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시대를 지나오며 남겨진 삶의 흔적, 건축의 실험, 한 인간의 철학이 함께 엮인 공간이었다.

양림동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꼭 이 고택의 대문을 지나 안마당까지 걸어가 보길 추천한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시간의 결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다. 🍃



양동시장통닭

냄새로 이어지는 시간의 맛

편집부

광주 사람에게 양동통닭은 자부심이다. 양동통닭은 광주 지역브랜드이자 시내를 관통하는 맛의 거점이다. 양동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퍼지는 통닭 기름 냄새는 단순한 먹거리의 유혹이 아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기억의 냄새다. '한 번'이 아니라 '익숙히' 들어본 통닭집이 바로 양동통닭이다.

광주의 심장에 자리한 양동시장은 오랜 시간 호남 최대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장날마다 북새통을 이루

고, 명절마다 내 자식과 손주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모였던 곳. 이런 양동시장도 세월에 따라 변하는 트렌드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장타령을 하던 풍경은 사라졌다. 중년층 및 노년층과 특정 사업장의 단골들이 주로 시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양동시장의 초입, 닭전머리에서 홀로 시대의 파도를 맞으며 살아남은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양동통닭'이다.

양동에 오면 이 맛은 있다



오래된 맛, 변하지 않는 마음
양동동닭은 어느 프랜차이즈 치킨
집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다. 그
아마로 전동이 있는 독보적인 치킨
가게이다. 외래어 '치킨'이라는 말보
다 순우리말 '동닭'을 사용하는 곳이
다. 옛날 방식 그대로 밀가루옷 얇게
얹혀 기름에 동째로 튀겨내는, 찹을
수북 고소한 그 동닭 말이다. 누렇게
기름이 배어나는 종이상투에 동닭
을 담아 주던 시절을 기억하는가. 그
들에게 양동동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향수
이자 가족과의 저녁 밥상, 친구들과
의 낭만이다.
전동을 지낸 양동동닭이라고는 하
나, 그 옛날 동닭에 머물렀다면 꾸
준한 사랑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
이다. 양동동닭은 시대 변화의 바람

이 불어오기 전에 진화를 택했다. 누
런 종이봉투는 사라지고 산뜻한 종
이팩스가 등장했다. 동닭과 함께 나
오는 달걀과 동집 그리고 고구마튀
김은 여전히 단골들을 사로잡는다.
관습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와 단
순한 기술이 아니다. 양동동닭이라
는 브랜드가 기억을 파는 방식이자
맛의 문화다.

양동동닭의 양동시장

광주를 대표하는 양동동닭이 긴 역
사를 지켜온 양동시장은 어떤 곳일
까. 양동시장은 단순한 제세장이
아니다. 광주가 품어온 시간과 기억,
살과 맛이 중첩된 다원적인 공간이
다. 계절의 변화가 진열대에 고스란
히 담기고, 사람들의 삶이 오고 가는
골목 사이에서 시장은 살아 숨 쉰다.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의 정을 거래하고, 자연과 역사를 이
어가는 호남 중심 시장이었다. 이 안
에는 음식 냄새, 손끝의 촉감, 입에
담기는 맛이 하나의 문화로 응고되
어 있다.

양동시장은 광주의 기억을 품은 장
소이다. 해방 이후 울려 퍼지던 시장
모퉁이에 앉은 약장수 구호와 북소
리, 길바닥을 울리던 각설이 타령,
손끝으로 저울질하며 흥정하는 소
리. 이 모든 소리가 시장의 리듬이
고, 광주의 심장 소리였다. 양동동닭
과 함께 양동시장의 역사는 단절 없
이 이어진다. 80년 광주가 아꼈던
시절에도 주먹밥을 싸고, 김밥을 만
들며, 삶과 저항을 함께 나누는 공
간. 시장은 언제나 삶의 편에 있었
고, 공동체의 가장 든든한 결이었다.

손에 묻어나는 윤기와 온기 코에 퍼지는 파우더의 향과 기름 냄새 이에 닿는 바삭함과 감칠맛 터지는 육즙

시장 브랜드가 살아날 때

양동통닭은 특별하다. 많은 시장 상인들이 프랜차이즈의 문법을 좇으며 제 이름을 지을 때, 양동통닭은 지역성을 전면에 내세워 정체성으로 삼았다. 양동시장은 맛의 공간이다. 시장의 온기, 지역 정체성, 어머니 손맛이 바로 양동시장의 맛이다.

양동시장은 광주의 중심에서, 시간의 붕과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남았다. 광장의 함성이 꺼지고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어도 양동시장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양동에 오면, 이 맛은 있다.”

이 정직한 문장은 브랜드 마케팅이 되었다. 양동통닭은 단순히 튀김 하나 곁해서 생존한 것이 아니다. 지역과 상생하고, 시장이라는 공간이 할 줄 아는 시간성과 감성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양동통닭은 음식이자 문화가 되었고, 통닭을 먹는 행위는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 되었다.

양동통닭의 미래는

양동통닭의 미래를 묻는 말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힘들다. 2030은 시장에 가기보다 배달 어플을 더 자주 사용한다. 치킨 세계는 브랜드와 가격, 광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양동통닭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위치를 지킨다. 광주라는 도시, 특히 양동이라는 공간에서 통닭은 단지 음식 재료에서 멈추지 않는다. 관계의 매개이다. 시장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 익숙한 인사, 고소한 기름 냄새, 손에 남아 있는 온기. 그것이 양동통닭이 품은 이야기다.



광주 문화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화려한 축제나 최신 트렌드만을 볼 수 없다. 진짜 문화는 오래된 풍경과 공간 속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한 존재 속에 깃든다. 그 중심에 양동통닭이 있다. 닭 한 마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시간을 지탱해온 양동통닭은 광주가 지닌 정서와 생명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지금도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익숙한 냄새를 맡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아, 그래.

아직 여긴 살아 있구나.”

1
9
8
0

이준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광주의 봄을 기억하다



민주화의 봄: 전남대 여성문제연구학회 창립

1980년 봄, 전남대 2학년이었던 내게 그 계절은 “비상계엄 해제”, “군부독재 타도”,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뜨거운 구호와 함께 다가왔다. 유신독재의 터널을 지나 민주화 열망이 뚝뚝 터져 나왔고, 나 역시 대학에서 스크럼을 짜고 운동가요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고, 며칠간의 철야 단식농성에도 함께했다.

그해 봄, 내가 가장 일정적으로 임한 활동은 전남대 ‘여성문제연구학회’의 출범이었다. 당시 노동과 농민 현장에서 여성의 시위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회 전반에는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이 만연했다. 창립 멤버였던 우리는 “나는 여성이니까 안돼”라는 제한을 넘어, 성차별의 장벽을 허물고자 했다.

항쟁에 참여한 날들

1980년 5월 16일 밤, 민족민주대성회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모이시”는 약속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의 외침은 한반도에 메아리쳤고, 햇불행진은 어두운 한국을 밝히는 듯했다. 친구들과 선배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고, 나도 시위에 참여해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경찰도 평화적인 행진을 막지 않았다. 시민들의 호응을 보며 군부가 더는 실물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5월 17일 사정, 계엄군은 국회를 점거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전격 체포했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밤을 새워 시국을 이야기했다.

5월 18일 아침, 이미 전남대 정문 앞에서 모이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비상계엄 확대와 정치인 연행 소식을 접한 나는 늦었지만 집을 나섰다. 그런데 전남대 앞까지 갈 것도 없이, 금남로와 공용터미널 주변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를 전과 달리 시위 규모는 작았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경찰은 무력 진압에 나섰고, 진압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처음에는 눈알의 폭력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금남로와 송장로를 오갔다. 오후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그들의 진압은 경찰



차량 시위대에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여성들 (이장성)

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진압봉으로 머리와 온몸을 마구 내리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머리가 깨지고, 옷이 찢기고, 피가 낭사했다. 공수부대의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듯 보였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자였고, “나도 저들 손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온몸을 감쌌다.

시위대의 구호와 공수부대의 폭력이 교차하면서 광주 도심은 곧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러나 공수부대가 시위대와 시민을 구타하려 할 때는, 시민들이 건물 안에서 공수부대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민중항쟁의 전초였다.

그날 저녁, 경찰과 공수대원에게 쫓겨 돌아온 나는 어머니의 결사적인 만류로 다음 날부터 시위에 나가지 못했다. 그 무렵 공수부대의 진압은 점점 더 극악해졌고, 시민들의 저항은 한층 강고해졌다.

5월 22일 오전, 도청광장을 찾았을 때는 전날 집단 발포 이후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고, 최정예 공수부대를 물리쳤다는 자부심이 넘쳤다. 나도 대학생 대열에 합류해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은 시민·학생들의 수습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1층 상황실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상황판을 정리했으며,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공시하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걱정하며 도청에 물러든 시민들을 상무관으로 안내하면서, 말로 나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눈물을 삼켰다.

24일에도 나는 도청 상황실에 있었다. 누군가 도청에서 활동하던 대학생들을 모이게 했고, YWCA로 안내했다. YWCA에는 더욱 뜨거운 결속력이 느껴졌다. 수십 명이 소심당 바닥에 앉아 대자보를 쓰고, 검은 리본을 만들어 걸기 대회를 준비했다.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대인시장에 식자재를 사러 나났다. 모금한 돈으로 갈땀 치르기도 했지만, 시장 상인들은 가격을 낮춰주거나 물품을 무료로 내주었다. 비단 상인들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전두환 군부에 맞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그날 시민들이 나누는 것은 단순한 주역밥이나 현혈이 아니었다. 그 의지는 생명까지 함께 나눌 것 같은 절대공동체였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청과 YWCA에서 활동한 나는 밤마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건물 앞에서 귀가를 기다리며 나를 재촉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 내가 집에 있던 그 시각, 계엄군은 재진입 작전에 들어갔다. 또다시 시민을 향한 총성이 울렸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요란한 총성이 터지기 전, 애절하게 울리던 여성의 가두방송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아프게 각인되어 있다. 바로 그날 새벽,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1980년 봄, 내가 목격한 것은 군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민주화 열망을 유린한 전두환 군부의 만행이었다. 동시에 그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몸으로 저항하며 광주를 지켜낸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을 보았다. 1980년 이후의 봄과 그 이전의 봄은, 그래서 내게 완전히 다른 계절로 남아 있다. 이후 나는 살아남은 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사람과 역사는

이렇게 만나기도 한다

김통규
광주지역 언론인

문화담론지 <창>으로부터 5.18에 대해 귀로 들으며 사란 신세대의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맞다. 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꾼 그 거대한 사건을 귀로 들으며 사왔다. 그러나 내가 귀로 들어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사건과의 진정한 만남은, 그날의 사진들을 본 순간에 이뤄졌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망월동 묘역에서 우연히 그날의 사진들을 봤다. 5.18에 대해 들으며 사왔고, 학교에서 오전 방송 시간에 들어준 다큐멘터리를 보며 그 사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큰 충격을 받았고, 광주의 아픔과 소외감이 가슴 깊이 뿔려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까지 아프고 억울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일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원통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과 역사도 이렇게 만나기도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역사에 빠졌고, 더 많은 과거의 일을 만나고 싶어 역사 서적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2007년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극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던 그때의 감각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시절, 오월이 되면 도시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 도시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는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꿨고, 명예와 공시의 역사가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청소년이던 2013년, 5.18에 대한 조롱과 편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희생자의 관점에서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망언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일부 청년(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2014년 5월, 나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곳엔 “오월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이여, 이곳에 계신 오월의 영령들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날 외롭게 필러이던 그 현수막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나는 그날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만들었고, 2023년 8월 마지막 글을 쓸 때까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날의 사진, 대화의 순간,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 속에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공론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공장과는 다른, 일방향의 소통이었다. 기억해 달라는 요청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당신의 이야기가 없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는 청년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오월 공론장을 만드는 프로젝트 '에브리싱, 메이, 몰렛원스'를 운영했다. 작지만 소란스러운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하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 '오월 공론장' 행사를 열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진'도 발행했다. 어느새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된 나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5.18행사위의 김꽃비 프로젝트를 매너서를 인터뷰했다. 그는 "지역에서 5.18을 이야기할 때 청년의 목소리는 누락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청년들이 5.18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론장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댓 원스>의 주제였던 가능성의 멀티버스처럼, 오월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 그날의 잔인한 사진들을 보고 5.18을 감각하게 되었을 때, 내 해석은 확고했고 거기서 도출된 행동의 방향도 명확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에 나서주길 바랐다. 그런데 김꽃비 씨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광주 청년들이 큰 작문 "5.18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라는 검열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5.18이라는 사건이 자주 들어봤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보낼 여지는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주제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과거의 일로 남겨진다.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날이 기억되길 간절히 바랐기에,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5.18민주광장에서 나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오월을 만났다.

1980년 5월 27일, 전두환 군부는 훗날 대법원에서 내란목적살인 행위로 확인된 상무총장작전을 감행했고, 광주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도청 방송실에서는 "우리들을 기억해 달라"는 박영순 씨의 마지막 방송이 있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이 우리 사회의 영혼(헌법)에 위배됨을 확인하는 순간을 그 자리에서 마주했다. 다양하고 재치 있는 것들을 들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낮이었음에도 집회 내내 손에 쥐고 있던 응원봉을 들고 온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사람과 역사는 이렇게 만나기도 한다. 이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 굳이 기억해달라 호소하지 않아도, 정해진 해석을 내리지 않아도, 이루어질 만남은 반드시 이뤄지고야 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5.18과 청년의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낙관론자가 됐다. 🌱

광주비행장이 꺼안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



이건상 남도일보 뉴미디어국장

광주 상무지구 옛 광주비행장의 내력은 서울 용산과 동일하다. 용산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이 대거 주둔했으며, 1913년에는 일본군 용산 연병장에서 한반도 최초의 동력 비행이 전개됐다.

광주비행장도 일제강점기에 개장돼 일본군, 미군 캠프, 한국군 주둔, 포로수용소, 육군 장교교육시설, 행정타운이라는 땅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땅은 전쟁과 수탈, 강제징용과 노동, 분단과 이념의 슬픈 현장이었다.

1. 일제 광주비행장 건설과 항공 운용

일제는 한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1920년대 평양 능라도에 육군 항공대 제6항공연대를 주둔시켰다. 이 부대는 비상사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전국에서 임시 활주로를 물색했는데, 송정리 일대가 검토됐다.

실제로 1937년 10월 광주비행장 건설이 시작됐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광주부를 앞세워 부지 10만 평을 매입하고, 그해 11월 23일 비행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1939년 11월 15일 광주비행장 개장식이 열렸다. 전북 고창출신 신용욱(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재)은 1936년 조선 유일의 민간항공사인 [신항공사업사]를 설립하고, 경성-이라-광주 노선에 뛰어들었다. 개장에 앞서 그는 1938년 5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서울서 이륙, 4시간만에 광주비행장에 착륙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광주 사람들이 1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당시 비행장 규모는 12만평. 광주비행장은 승객 보다는 우편물 수송이 주요한 일이 되면서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운영을 맡았다. 항공기 운송에 기상정보가 필요하면서 인근에 기상관측소도 세워졌다. 광주시방기상청의 기원으로 근대 기상관측의 시작

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1942년 광주비행장 운영은 일본 육군으로 넘어갔다. 민간 공항에서 군용으로 개조 작업과 함께 전황에 따라 1943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비행장 공사 현장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와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숙소인 합바 천장은 구멍이 뚫려 눈발이 실내에 쏟아지고, 침구는 담요 한 장 뿐이라서 밤새 추위를 떨었으며,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한다. 광주비행장은 또 하나의 강제징용 현장이었다. 1943년 이 무렵 무안군 망운면에서도 비행장이 건설됐다.

광주비행장의 임무는 본토 항공 부대의 후방 기동기지이자, 항공 인력의 양성이었다.

1945년 일본 해군이 인수하면서 항공 교육기지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6월에 광주해군항공대로 부대 명칭을 확정하고, 초보 비행요원을 양성했다. 이른바 사살특공대로 알려진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속성으로 양성하는 공간이었다. 상무대 비행장이 요카렌(구 일본해군의 소년항공요원 지양생)비행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해방 직전 광주해군항공대 전체면적은 180만㎡(54만 4500평)로 지금의 상무지구와 동일하다. 비행 활주로는 전남고 차리에서 광주대표도서관이 건설중인 옛 상무소장장 방향이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로 소형기가 이착륙 가능한 단선으로 길이 1,000m, 폭 40m, 20cm 두께의 아스팔트 포장이었다.

해군항공대 건물 81동은 모두 비행장에 집적됐다. 항공



1994년 장성으로 이전 하기 전 광주 치평동 일대 상무대

대가 사용할 항공 연료는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부지에 있는 3개의 동굴 등 모두 4곳에 보관했다. 탄약은 광주시 서구 월암마을 뒷산 극락교 인근 사월산에 동굴을 파서 그 곳에 두었다.

2. 미군기지와 한국군 주둔지로 임무 확대

일본이 패망하면서 주한미군 제6사단 제20보병연대가 광주전남지역 군정을 실시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10일 광주에 도착해 광주항공기지 활주로와 인근 지역에 80개 막사를 짓고 장기 주둔 준비를 차렸다.

미군은 광주비행장 주둔지를 캠프 사이크스(Camp Sykea)라 이름 붙이고, 연대본부, 제5대대가 숙영했다. 일본 해군 비행장에서 미군정 부대 주둔지로 바뀐 셈이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비행장 내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가 창설됐다. 그 해 9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1948년에는 한국군 제5여단이 창설돼 여단사령부가 비행장에 들어섰다가 이듬해 제5사단이 편성돼 백선엽 사단장이 부임했다. 이들의 임무는 전남지역의 빨치산 토벌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교통부가 광주비행장을 관리했다. 1949년 2월, DC-3 기종이 취항하면서 민항기를 운항했는데, 서울과 광주를 매일 나갔다. 요금은 7천원이었고, 광주, 제주도 주 3회 운항했다.

3. 한국전쟁과 육군 상무대로 변신

한국전쟁 중 미군은 한국군의 정예화를 위해 교육기관



한국전쟁기 전남대병원 인근의 중앙포로수용소(1952.1.24.)

의 설립을 추진했다.

1952년 1월6일 한국군훈련센터(KATC)가 광주비행장에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개교식에 참석, 이 훈련센터를 상무대로 명명했다. 광주비행장 활주로에서 보병, 포병, 통신학교의 합동 개교식도 열렸다.

한국전쟁 시기 광주비행장과 상무대에 포로수용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뒤편의 중앙포로수용소와 비행장 일원의 상무대 포로수용소였다. 상무대포로수용소는 제1포로수용소 또는 제15포로수용소로 불렸는데 비행장과 사월산 아래 벽진동, 금호동 등 3곳에 막사를 두었다.

상무대 비행장1막사에는 3,700여명, 벽진동 2막사에 3,700여명, 금호동 3막사에 3,100여명 등 모두 1만여명의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됐다. 이들은 한국에 잔류하고픈 이른바 반공포로였다. 광주수용소 포로 중에는 시인 김소월의 아들 김정호도 있었다. 전남대병원 중앙포로수용소에는 시리산 등 전남지역에서 체포된 빨치산, 빨치산 가족, 부역혐의자 등이 수감됐다.

광주비행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비행장 보다는 교육기관 상무대로 진화했다. 상무대 또한 1994년 장성으로 이전했고, 그 자리에 행정, 주거타운 상무시구가 들어섰다.

광주비행장은 1962년 3월 미 공군이 전술 항공기지 확보와 보안문제를 들어 이전을 추진, 지금의 광주공항 자리로 옮기게 된다. 

재단
20년
우리의
여정



2005
~
2025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함께한 순간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 가득한 20년, 함께 만드는 미래

「지역문화교류재단」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꽃다운 스무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정일 정부의 '전라남도 도청'과 이천과 노무현 정부의 '헌법'에 부합하는 국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작가인 김성래

후정의 '행정수도'에 걸맞은 '문화수도' 급격히 광주광역시 면적으로 옮겨 퍼져 광주시민의 선풍적인 지지의 기록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수도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오래되었고, '아시아 문화충돌도시'라는 이름으로 광주도심의 활력가점인 '국립 ACC'가 들어섰습니다.

농업기반이 확고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은 선입화를 겪으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자본시장이 지배하는 예술시장에서 멀어 있지않.

독유한 지역의 예술성과 타고난 예술적 재능은 지역의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된 광주-전남-북에 지방분권을 제공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알리고,

문화회하는 지역문화교류재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제안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조심여주의 지평을 넓히고, 길이를 더해 온 「창」은 지역문화의 보고였습니다. 앞으로 「창」이 독점 시주와 인맥으로 형성된

「전영의 벽」과 「거동권의 카르텔」을 향해 과감한 혼전앞면의 비행이 있어 숨쉬거울 기대해 봅니다

- (주) 지오시티 대표 류영국

서른그음에 파란을 만나 벌써 셋째해로

20년 멋진 선배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루 파란의 에너지로 함께하며 (창)에 만년불을 싣었습니다.

20년 신문사나 라디오를 통해 인터뷰나 기고를 했어 했는데

(창)에 담은 글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3월에도 힘 좋은 7월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20년의 문화예술인이 담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매기브릿지 대표 김경환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적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예측적 기술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창>이

20년간 발행되었다고 하니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창>을 위해 헌신하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적 담론을 공유하는 매체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교수 박주연

지역문화교류재단이 다시 아사아를 좋은 단체가 되기를 지원합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이 아사아를

새대로 전할지는 못하지만 아사아를 지원합니다.

-작가인 조수빈

문화원가민사업의 고문 김성윤

재단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문화는 국가문화의 기초이며 민족문화를 견인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지니며 정체성과 자금을 제고합니다

우리 지역문화교류교류재단은

그간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협심하여

큰 가치를 구현하는 뜻에 함께 동참하고

성과를 거두어 나아가시길 기대합니다

-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권득염

지역문화교류교류재단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이 정해듯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에 변화된 모습이 대경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지역문화 함양에 헌연일체가 되어

무궁무진한 도약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사) 518구속부상자회 이사 최원주

20년 청년이 된 지역문화교류교류재단의 힘찬 도약과 멋진미래지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우와!! 벌써 20주년.

우리 마음의 창에 관한 빛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5메이브 마드페어 감독 이모숙

광주공동체 여성의 지문과 평정과 현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20년도

기대되고 잘 될것으로 믿습니다.

지역의 문화교류로

나눔의 가치를

아이가기를 지원합니다

저도 미래하나마 힘 보태주세요!! 아지아자 라이딩^^

광주시민사회의지원센터장 이기훈

-기여자단체 문학문명집장 조신영

지역문화교류교류재단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0년이 더 있으면 좋겠네요..^^

페르소나 시 광주본부장 김용덕

지역문화교류교류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할수록 것이

항 상의 많은 일인데 문화수도 조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항 상의 많은 마음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여러 선배들에게 많은 후원의 마음 보내 주셔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이화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주년 축하드립니다.

- (사) 금호시스템 부장 국영일

스무 해 전 작은 물결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차였습니다.

그 물결은 바람을 타고 지역을 넘어

세대를 이어 예술과 감동으로 이어진 길을 밝혔지요

이제 또 다른 스무 해를 함께 더 높이, 더 넓게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 시민 박수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식구들을



박신영 부이사장
(국제 PEN 광주위원회 이사장)

'올해의 국제PEN 광주문학상'에
이거울 시인의 시집 『별을 주워 담는
가난』과 김용갑 시인의 시집
『수서행 기차를 타고』 선정



천득염 이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간다라 내 불교유적을 망라하여 소개한
『간다라지역의 불교문화와 불탑』 출간



이영숙 후원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



이기훈 이사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센터장)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비영리 단체
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키움_변화와 성장' 사업 추진



정성구 운영위원
(주) 도시문화집단CS 대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위원장 좌장을 맡아
'아문도시 조성사업' 일몰 대비 토론 참여

응원

원

합

니

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식구들의 성취를

의



김병내 회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인구 감소 돌파구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임성화 회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주거빈곤정책의
새로운 기준 제시

합



이상호, 한회원 회원
(작가)
무등현대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푸름 나눔'전 개최



이용섭 회원
(전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시장 초청 금요조찬 포럼 성료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주제로
제 1682회 금요조찬 포럼 개최

니

다

함께하는 사람들

15년 이상

[주]이코델 강경희 강정민 고명주 국형현 김광현 김병기 김선주 김 승 김명수 김옥현 김원중 김원현 김윤기 김은지 김 인 김재수 김정옥 김경호 김송명 김지민 김형순 김현희 김효삼 남태송 민형배 박세진 박은혜 박재민 박호재 방현용 백수원 변효현 서인석 서정현 서희식 천명재 송광용 송미선 송선기 신효삼 양관화 양승진 양승근 양혜영 오경남 오권진 오형수 이재원 이기훈 이광자 이병선 이선옥 이승원 이승재 이재식 이정복 이창원 이 천 이태홍 미향원 장석원 전용호 정경운 정민표 정수옥 조성식 조준성 주재만 주 통 최광운 최기호 최영대 최승명 최정동 하용운 현희원 하 진 홍재용 황광우

10년 이상

강리정 강명호 강원명 강지희 강재진 박규조 권수용 김미선 김미애 김민정 김성태 김명순 김용희 김민철 김민태 김승원 김철중 김홍조 김희송 나건용 남상철 노선희 류명국 문재철 박강배 박정희 배민희 백승현 서순진 송윤순 신민식 신성훈 신재호 신홍남 엄수경 염나기 오미란 오형근 유현섭 윤만식 이대성 이윤범 이상배 이상호 이선희 이이남 이향순 임승채 황성현 장지원 정성구 정성희 정숙민 정영배 정용현 정태정 조경희 조경림 조영림 조영표 전서명 전득범 최주명 최 원 현정희 한우연 허달용 허창용 황경하

5년 이상

장 원 강산경 구용기 김광옥 김기곤 김동규 김명술 김병관 김병환 김성현 김승원 김명환 김명미 김용구 김용현 김윤명 김원중 김재현 김혜선 김혜영 노성태 문형현 박대수 박범진 박상호 박선명 박송진 박철우 박홍근 송용민 송진희 신광용 안태선 안영현 명금숙 양동희 유방삼 유영연 유우상 유정현 윤태영 이광재 이지은 이지호 이효원 민상훈 민승희 전운전 정광민 정성국 조경현 조영오 주정민 진동희 전금명 최광희 최용진 최현희 한 선

5년 미만

[주]원인가획 강민구 강성욱 경지나 고재승 김경만 김광원 김단비 김득현 김민표 김범태 김병배 김병희 김상태 김성래 김성순 김성진 김성환 김영정 김영광 김윤아 김 은 김정진 김송대 김 전 김태만 김효곤 나선희 나송대 노경수 박가림 박향선 문영태 박승훈 박선미 박세웅 박승현 박현수 박태관 박현숙 박희자 백남숙 변효석 송지나 신동주 신정파 신정호 심연희 심명근 양창식 양도영 유승열 윤명국 윤상호 이경선 이경훈 이다빈아 미동소 미동희 미효숙 미효남 이승준 이명숙 이명희 이용삼 이정현 이송연 이현식 이혜숙 임규근 임혜영 장선영 장민순 장조은 정성원 정순기 정순주 정영석 정용택 정영숙 조수빈 조진영 주송화 최갑승 최금찬 최유진 최송귀 최혜원 하성미 하성훈 하유담 하 원 홍준석

특별회원

구송윤 안광재 김국웅 김나복 김남수 김민정 김병관 김창윤 김 성 김성신 김성현 김연중 김명기 김명주 김명진 김원중 김윤기 김형수 김송근 김하림 김창희 김현대 김 원 노금진 부재현 마형현 문병만 박선정 박은보 박선명 박용식 박주현 반상진 백형주 서명원 서정남 안순원 안승원 안진오 양명희 양형현 양혜영 오형근 유우택 주재선 윤재호 윤태환 이재원 이근재 이상식 이정용 이화정 민내현 민상정 민상록 장기명 정두석 장희국 정규현 정대명 정종립 정진용 정태정 정현배 정환상 조원익 조희노 지병노 지형원 차원현 차홍순 천득범 최우진 최영관 최영근 최선영 최영순 최희용 허성관 허 경 홍광표 홍경하 홍명섭

역대 이사장

1대 안진오(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대 오병문(제33대 교육부 장관)
3대 허성관(제6대 행정자치부 장관) 4대 문병관(조선대학교 명예교수)
5대 백수원(조선대학교 명예교수) 6대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7대 노경수(광주대학교 교수)

이사회

[이사장] 노경수 [부이사장] 김광국 박선명 [상임이사] 김윤아
[이사] 국형현 김 성 김대현 김민표 김옥현 김재선 노성태 류명국
박요주 박송진 박주현 이기훈 천득범
[감사] 윤만식 최희용 [고문] 김상윤 백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명관 [부운영위원장] 김민표 조수빈 주 통
[운영위원] 김경현 김기곤 김병희 김성래 김성환 김재선 박주현
송지나 윤은희 정성구

후원이사회

[후원부회장] 국형현 이명숙
[후원이사] 김동규 김용희 류향선 문영태 박현수 이묘숙 이현식
정광민 조정기 조진영 최형주 현영남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류명국
[기획위원] 김광옥 김원중 송재환 이관상 이동희 이향순 민선화

창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재환 [편집위원] 박선명 이현식

재단 사무처

[상임이사] 김윤아 [사무국장] 이지호 [간사] 이윤서 박가영

신규회원(2025년)

김권남 김미애 김석송 김성순 김진홍 나대승 윤정우 백가명 박미선
박현수 신한용 신헌하 유동순 윤소영 이국연 이윤서 이윤주 이정훈
이해명 임선화 정 권 정은영 조영기 세송훈 한석동 허영원 황동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위원을 소개합니다.

재단과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강지나	국형열	김광진	김민정	김민표	김 성
김윤아	김용혁	김지원	김혜선	김혜영	김호균
노경수	노성태	문정우	문찬귀	박신영	박은혜
백인철	신민용	오경희	이기훈	이명란	이나빈아
이승남	이양재	이지은	이채연	장휘국	정광민
정성구	정용택	조수빈	천금영	천득염	최혜란

해양에너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재단 홈페이지

• 20주년 후원계좌안내 •

광주은행 019-107-320656

예금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후원금 및 후원단체는 공개가 원칙이나 원치 않을 시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재단 블로그

#착한도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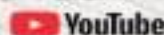
평범한 날들이 더 행복하도록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더 많아야 합니다.
멀리 여행가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리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신 가까이에서 더 많은 행복을 만듭니다.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광주전남지역본부



동구아카데미

2025년 5월

치매예방 그리고
따뜻한 동반자

손명동 교수



5월 9일(금) 오후 2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

- **참여방법**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
온라인신청 두드림 앱(배움동구)
전화 신청 인문도시정책과 062-608-2143
- **접수기간** 4월 28일(월)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분양

산업시설용지(제조, R&D, 유통) 및
단독주택용지 상반기 분양예정

분양문의 : 062)600-666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025 광주 방문의 해

**축제가
온다!**

광주주류관광페스타
광주식품대전
Tea&Cafe Show
5.29 ~ 6.1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스트리트컬처페스타
6.5 ~ 6.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9월 중

충장축제
10월 중 / 충무로-충정로
광주김치축제
10월 중 / 시청광장

광주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경기
충무로야구장 /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광주시민의 날
5.24 / 시청광장

아트파크닉
4~11월

프로축구 광주FC 경기
충무로야구장 / 광주월드컵경기장

**즐거움이
온다!**

왔다

빛이 온다!

**민주가
온다!**

세계인권도시포럼
5.15 ~ 5.17 / 현대세계당선수권대회

오월 광주, 민주주의의 대축제
5.18 전역, 5.17 ~ 5.18 / 5.18민주광장, 충무로

민주평화대행진
5.17 / 광주교동 충무로 광화문 도로

광주국제인문워크
5.12 ~ 5.15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6.25 ~ 6.3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5 현대세계당선수권대회
9.5 ~ 9.1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9.22 ~ 9.2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 중 / 비엔날레전시관

**세계인이
온다!**

